

칼빈주의 네덜란드

빌리암 덴 부어 박사 (Dr. William den Boer)

번역: 정찬도 강도사

'여론'에 의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라는 용어를 부정적 성향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개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은) 시민'과 동의어로 흔히 생각한다.

'칼빈주의'란 용어는 16 세기에 기원하며, 개혁주의 성찬론에 대해 루터가 폄하하여 사용한 말이다. 또한 이 용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과 동일하게 보았고, 네덜란드 급진주의자들은 도르트 회의 (1618/19) 즈음에 그들의 대적자의 예정론 교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소위 칼빈주의자들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칼빈주의자로 말하지 않았다. 개혁주의자들이란 용어가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교회는 (기독교) 개혁 교회라고 불렸지, 칼빈주의적 혹은 칼빈 교회라 불리지 않았다.

칼빈주의적 네덜란드의 신화

19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에서, '칼빈주의적 네덜란드'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 토론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의 근원들이 놓여있다. 하지만 칼빈에 대해 찬성자와 반대자 양쪽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칼빈의 사상이 네덜란드 교회와 삶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소위 흐로닝언 학파는 1830년에 생겨났다. 이 학파는 개혁주의 교리가 아니라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들 신학의 중심에 놓고, 민족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신학자들의 운동이다. 그들은 네덜란드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인 히어르트 흐로터 (Geert Grote), 토마스 아 켐피스 (Thomas a Kempis, Modern Devotion)와 특별히 에라스무스 (Erasmus)의 참 네덜란드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 혹은 수입된 것으로 경고하였다.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티즘의 속성은 제네바 칼빈주의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국가-개혁주의 (notional-gereformeerd) 혹은 에라스무스적 성경 인문주의와 들어 맞는다. 하지만 흐로닝언 학파에 의하면, 칼빈주의적 관점을 오직 예정과 구원으로만 대체

하는 것은 당신을 오직 사회적 용어인 최하류 계층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평민', 그들의 비판가들처럼 보수적이고 편견이 심하고, 고집이 세며 보수적으로 생각하게끔 한다. 칼빈주의의 형성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더 추가될 수 있지만, 19세기 20세기의 '분리주의자들'과 다른 정통주의자들에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형성되었고, 보다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Schutte 2000).

반대로 정통주의자들의 관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에 의해 표현된 것처럼,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인들에게 최고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칼빈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순수한 계시'로써, 네덜란드 민족 성향의 근본 바탕을 형성하였다. 특별히 개혁주의-교회 환경 단체는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그와 같이 성명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 칼빈주의는 16세기와 17세기의 '칼빈주의'를 해석하는 일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주의의 19세기 역사학자들은 개인, 현대 정신, 자유의지에 대해 강조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평가된 발전들과 그들을 통해 칼빈주의의 큰 의미를 인지했다. 요약: 자유주의의 이전 국면으로써의 칼빈주의.

알라르드 피어슨 (Allard Pierson, 1831-1896)은, 19세기 신학자, 철학과 예술 역사, 1881년에서 1891년까지 존 칼빈 (*Johannes Kalvijn*)에 대해 그의 *Studiën*에 출간하였다. 피어슨은 부흥 단체들의 영향으로 인해 현대 신학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그는 정통주의에 대해 극렬히 저항하였고, 그의 목사로서의 직분도 내려 놓았으며, 결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떠나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칼빈'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보면, 칼빈과 칼빈주의가 역사의 기록들로 보관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피어슨은 칼빈의 가장 크고 깊이 있는 대적자 중 한 사람이다 (Oberman 2003). 피어슨과 함께 한 많은 저명한 사람들로써 베티 볼프 (Betje Wolf)와 아아허 데이큰 (Aagje Deken), 몰타툴리 (Multatuli, Eduard Douwes Dekker) 와 콘라드 부스켄 허이트 (Conrad Busken Huet)로, 이들의 칼빈주의에 대한 혐오감 혹은 비판은 폭 넓게 읽혀지고 영향력 있는 책들은 널리 알려졌다.

사실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칼빈과 자기 자신의 칼빈주의를 조작하였다. 칼빈주의의 대적자들은 그들의 비동정적 속성과 발전 모두 칼빈주의의 영향이라고 기록한다. 정통주의 개혁주의자들은 칼빈과 칼빈주의의 영향에 대한 지배적인 19세기 표준들, 가치들, 행위들 그리고 신학적 관점들을 기록하였다.

더 콕 (De Cock), 분리와 '작은 칼빈'

'세 번째' 그룹은 주로 '작고' '조용한 평민'으로 구성된 자들로, 네덜란드 개혁 교회 (Hervormde Kerk)의 계층적 조직 구조들과 신학적 현대주의에 반하여 움직이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1834년 이후 국가 교회 (de vaderlandse kerk)로부터 분리하였다. 헨드릭 더 콕 (Hendrik de Cock, 1801-1842) 목사는 그의 세 번째 목회지인 울룸 (Ulrum, Groningen)에서 영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의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재)발견은 1831년부터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 콕은 특별히 칼빈을 개혁주의 진리를 알게 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일컬었다. 더 콕은 종종 현대 동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1833-1834년에는 설교자로서의 정지와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 1834년 10월 13일에 울룸 교회는 네덜란드 개혁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되었다. 이 분리는 네덜란드 개혁 교회와 나란히 하는 많은 독립된 개혁 교회들의 기원에 이르렀다.

더 콕 목사는 1837년에 위에서 언급된 칼빈의 『기독교강요』 네덜란드어 요약본을 재출판하였고, 거기에 자신이 서문을 작성하였다. 더 콕은,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3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고, 1834년에 감옥에서 그의 아내에게 '작은 칼빈'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과 위로를 줄 것을 요구했다.

더 콕은 1833년에 1618/19년 도르트레흐트 총회의 결정들을 재출판하는 데 힘썼다. 여기에서 무조건적 예정론은 더 콕에 의하면 '불멸의 칼빈' (den onsterfelijken Calvijn)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 포용되고 채택된 위대한 개혁자 칼빈의 교리' (Petrus Hofstede de Groot에게 보낸 편지)였다. 칼빈을 재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주의자들의 영적 지양분은 최소한 종교개혁과 칼빈과 마찬가지로 '진전된 개혁' (de Nadere Reformatie)에 의해 많이 결정되었다.

19세기 개혁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통주의 개념으로써의 칼빈의 관점에 대한 더 콕의 재발견과 함께 도르트 신조의 의미와 17-18세기 진전된 개혁의 경건주의적 개혁주의 운동의 영향에 대한 많은 강조는 분리되어 나온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경건주의적-개혁주의' 교회들에서의 이러한 요소들은 독특한 것들이 되었다.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와 신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 (1837-1920; 1886년 돌레안시의 지도자, 신문, 반 혁명당, 자유 대학교의 설립자이며 1901-1905년에는 수상 역임)는 소위 신칼빈주의의 요람이다. 신칼빈주의는 개혁주의 사상을 '시대의 보고' (in rapport met de tijd)로 가져오기 원했다. 신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생을 통한 성취에 놓았다. 이는 그것의 기독교 정당 (ARP), 학교들, 대학, 기독교 사회 단체 그리고 기독교 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견고한 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파주의 (verzuiling)는 부분적으로 반대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상(狀)을 주는 것에 대하여 반정립을 강하게 강조하는 사실 때문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8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졌던 그의 유명한 여섯 번의 스톤 강의에서 (*Het Calvinisme*), 칼빈과 칼빈주의의 과정과 깊이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카이퍼에게 칼빈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모더니즘의 정신에 결과적으로 반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이다. 수십 년간 신칼빈주의는 네덜란드의 개혁 교회에 적용되었다. 이 교회는 분리 기독교 개혁파 (de afgescheiden Christelijke Gereformeerden, 1834년 이후)와 네덜란드-독일 개혁주의 (Nederduitsch Gereformeerden)와의 연합을 통한 것이었으며, 이후 돌레안시 (1886년)이 여기서 생겨난다.

신칼빈주의의 강력한 번영과 확장이 북미와 남아프리카에까지 이르렀을 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르러 세속화와 현대 성경 연구가 네덜란드에 들어 오게 되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개혁 교회들의 강력한 세속화와 모더니즘이 동반되거나 뒤따랐고, 때론 (신) 칼빈주의적 과거를 매우 혐오하는 것에 이르렀다.

칼빈주의에 대한 네덜란드의 분열?

특히 1960년과 70년부터 소위 그들의 칼빈주의적 과거로부터의 전적 분리에 대한 몇몇 유명한 저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책들은 현재의 칼빈주의 상을 설명하는 일을 경히 하지 아니하였다. '답답하고, 숨 막힐 것 같으며, 죄책감을 느끼는 칼빈주의'에 대한 고통은 마르틴 비스허이플 (Maarten Biesheuvel), 마르틴 헛 하르트 (Maarten 't Hart)와 얀 볼커스 (Jan Wokers)와 같은 20세기 네덜란드 저술가들에게는 중요한 주제였다. 1984년 무료 책 증정 주간에는, *De Ortolaan*, 헛 하르트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없는 칼빈주의자들, 얼어 붙은 융통성, 엄격한 도덕주의자, 칼빈과 같이 모든 기쁨을 의심하고, 모든 인생의 욕망을 억누르기 원하고, 인간이 작은 행복을 알기 원하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얀 시벨링크 (Jan Siebelink)는 *Knielen op een bed violen*에서 '가장 검은 칼빈주의' (het zwartste calvinisme)라고 일컫는 것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저자들은 종종 칼빈에게서 기인하는 것과 칼빈주의에 대한 잘못된 평판을 특별한 종류의 종교적 경험과 실천에 대한 혐오로, 일반적으로 교회와 신앙 (세속화)의 포기로부터 일어나는, 종종 해석하였다.

결론: 칼빈주의, 칼빈주의자 그리고 칼빈

'칼빈주의'란 용어는 수세기 동안 다시금 새로운 의미로 부여되었다. 이 용어는 특정 시대와 상황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칼빈주의'의 문화적 특정한 형식과 상황이 - 개혁주의의 현대적 표현 - 지속적으로 분열되었던 사실은 놀랍거나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위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의 모든 형식들을 칼빈의 사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지난 세기에 너무 속히 '칼빈주의자'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곤 하였다. 하지만 한세기 전에 당신은 분명히 칼빈주의자라고 부르기 위해 최소한 칼빈의 몇몇 편지들을 바꿔야만 했지만, 지난 수 십 년간 그러한 요구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칼빈을 알기 원하는 자는 칼빈주의자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칼빈 그 자신에게 가야만 할 것이다.